

보험금 최대 1천만원은 왜 대출부터 갚나

무료 상생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 보험금을 채무 상환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만 별도로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발표와 상법의 생명보험 계약 구조를 대조하되, 공개되지 않은 계약자·수익자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발행	2026.09.02	연번	2026_82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2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상품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특정 채무를 줄이는 보장으로 본다. 공식 발표는 보험금의 사용 순서를 밝혔지만 계약당사자와 여러 대출의 충당 순서는 지자체별 세부자료와 약관에 남겼다. 무료라는 사실보다 어느 채무가 얼마나 줄고 남은 금액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보험업권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합니다. 이 가운데 6개 지자체의 신용생명보험은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최대 1천만원을 대출 상환에 먼저 쓰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 계약 구조는 공개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보험업권과 7개 지방자치단체가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보험	총 140억원	7개 지자체 각 20억원
신용생명보험	6개 지자체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보험금	최대 1천만원	대출 원리금 우선 상환
보장사유	사망·3대 질병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보장기간	가입 후 1년	경남은 10월 가입 시작
예상 대상	약 100만명	7개 지자체 소상공인

신용생명보험 대상은 지자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입니다.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먼저 쓰입니다. 상환액보다 보험금이 크면 금융위원회 발표상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제주와 충북은 사업수행기관 공고 뒤 개별 신청을 받고, 경남·경북·광주·전남은 지자체가 대상을 먼저 선별해 문자로 안내합니다. 손해보험 상품의 자동가입 절차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신용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이 가입자의 자유로운 생활비로 먼저 지급되는 상품과 목적이 다릅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구분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는 상법상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공식 발표 본문은 지자체별 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나 보험업권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보험계약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여러 건이거나 보험금이 채무보다 클 때의 상세 총당 순서와 지급 상대는 지자체별 붙임, 가입 안내와 약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보장 대상 대출 원리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보험금 전액이 채무 상환에 쓰이고 남은 보험금은 없습니다. 채무가 600만원이라면 최대 보험금이 전부 인정된 경우 공식 설명상 600만원을 상환하고 차액 400만원의 지급 절차가 남습니다.

보장기간은 가입 후 1년입니다. 대출 만기가 더 길어도 보험 보장은 자동으로 같은 기간 연장된다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보장 대상 대출을 받으면 최대 0.3%포인트 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을 새로 받으면 첫해 보증요율 0.3%포인트 인하가 지원됩니다. 두 혜택은 조건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보험금 상한	1천만원	지자체별 세부내용 상이
예시 채무	600만원	보험금 인정액이 1천만원인 가정
예시 차액	400만원	실제 수령인은 약관 확인 필요
보장기간	1년	대출 만기와 별도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계약당사자

지자체별 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금융위원회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02 · 여러 대출

대출이 여러 건일 때 어느 계좌부터 상환하는지는 지자체별 세부자료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사망 시 차액

발표는 초과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적었지만 사망보험금의 실제 지급 상대와 절차는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 갹신 여부

1년 보장 종료 뒤 같은 대출로 재가입할 수 있는지는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지자체 공고와 가입 안내에서 보장 대상 대출계좌,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와 사망 시 차액 수령인을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 여러 대출이 있다면 어느 채무부터 상환하는지 사업수행기관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금융회사

- 대출계좌와 보험계약을 연결할 때 상환 우선순서와 처리내역을 고객에게 보여 줍니다.
- 우대금리와 보증요율 인하의 적용기간·대상·중단조건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당국

- 지자체별 공고에 계약당사자, 보험수익자와 차액 지급 절차를 표준 항목으로 넣습니다.
- 보장 종료 전 재가입·종료 안내 기준을 공개합니다.

칼럼길**남은 보험금의 수령인이 약관에 명확히 적히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사망과 질병을 나눈 차액 지급 상대와 절차

A

수령인을 구분한다
피보험자와 유족은 보험사고별 지급 경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B

차액만 표시한다
사망 시 실제 청구권자와 필요한 서류를 사고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6개 지자체의 가입 공고,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안내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2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신용생명보험 ↗

금융상품 햇살론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7개 지자체 총 140억원, 6개 지자체 신용생명보험과 최대 1천만원의 대출 상환 금융위원회 무료 상생보험 출시 보도자료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2	1차 · 보험금이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3	1차 · 가입 방식, 보장기간 1년, 기업은행 우대금리와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불임 안내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4	1차 · 상생보험 사업의 구성과 6개 지자체 업무협약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 2026-03-16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5	1차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서면 동의 상법 제731조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6	파생 · 채무 600만원, 보험금 인정액 1천만원이면 산술상 차액 400만원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보험금과 지급 상대는 보험사고·약관·지자체별 조건에 따름 · 확인 2026-09-02

추적 예정	지자체별 계약당사자, 보장 대출의 우선순서, 사망·질병별 차액 지급 상대와 1년 뒤 재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가 공개 자료 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추정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확인한 보험금 사용 순서와 미공개 계약조건을 분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금융위원회 발표와 일반 법리를 분석한 것이며 개별 지자체·보험회사의 약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과 지급은 가입 공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릅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